

'제9회 스타트업 전북 창업대전' 개막

19개 창업지원 기관과 협업... 오늘까지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전북중기청)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북센터)는 19개 창업지원 기관과 협업해 21일 '2024년 제9회 스타트업(Start-up) 전북 창업대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창업대전은 2016년부터 지역 창업 붐 조성 및 성과 확산을 위해 매년 창업주간을 선포하고 도내 스타트업과 관련된 산·학·민·관 협력으로 각종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북 최대 창업·투자 페스티벌로 올해 9회째를 맞아 'Start-up! Scale-up! Jump-up'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1일부터 2일간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선포식에는 전북창업기관협의회 소속 기관 및 협단체 대표와 창업기업 대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민간 투자자, 창업에 관심있는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시상, 도내 유망 스타트업 스케일 100 선정 기업 선정서 증정식, 선포식 세리머니 등이 진행됐다.

선포식에 이어 세 개의 무대에서 우수 스타트업 투자 IR이 본격적으로 열

려지며 행사장 곳곳이 열기로 가득했으며, 행사장 한 벽면을 가득 메운 투자 IR 참여기업 소개자료가 참여자 및 투자자의 눈길을 끌었다.

전북 창업대전은 △우수 스타트업 61개사 투자 IR △창업기업 제품 및 아이디어 전시 △TIPS 운영사 통합 프로그램 △전북벤처 혁신 투자 조합 2호 출자 협약식 △상담부스 △해의스타트업 IR 피칭 △전북 청년 네트워크 교류회(청년공동체-이다) △네트워킹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TIPS 운영사별(주식회사 로우파트너스, (주)소풍벤처스, (유)스케일업파트너스, (주)크립톤) 투자자가 멘토로 참여하여 투자 상담부스가 운영된 가운데 법률, 노무, 재무회계, 창업, 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상담까지 현장에서 신청 후 즉시 상담이 가능, 참여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대표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이의 행사장서는 일반 도민이 참여 가능한 메이커 체험,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굿즈 팝업스토어, 인생네컷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선사하였다.



21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4년 제9회 스타트업(Start-up) 전북 창업대전 선포식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전북창업기관협의회 소속 기관 및 협단체 대표자, 창업기업 대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민간 투자자, 창업에 관심있는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포식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창업대전과 연계하여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안태용 전북중기청장을 포함한 35개 기관 및 협·단체 대표자로 구성된 전북창업기관협의회 대표자 회의를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21일 열었다.

전북창업기관협의회는 도내 창업 유관기관들이 서로 협심해 전북 창업정책 실행 방안 및 협업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회로 이날 회의는 국민연금공단, 전북여성가족재단,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우석대학교 창업지원단, 호원대학교 창업지원단 등 5개 기관 신규 가입 협약식, 전북특별자치도 창업정책 성과 및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 기관 협업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창업대전을 통해 우리 지역의 창업 열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가 지난 18일 군산 금광 행복주택에 태양광발전소(54kW)를 착공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산 금광주택 태양광발전소 착공

전개공, 12월말 상업운전 개시 목표로 추진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가 지난 18일 군산 금광 행복주택에 태양광발전소(54kW)를 착공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산 금광 행복주택(군산시 오룡동 947)은 전북개발공사가 2022년 준공해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 세대와 취약·노인 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고 있는 98세대 규모의 아파트이다.

해당 아파트 옥상을 활용한 발전 사업은 금년 4월 인허가 절차를 시작하여 한전과 설치 용량 재협의를 거쳐 용량 조정 후, 금년 말

상업운전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73MWh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32톤의 저감 효과와 더불어, 발생하는 발전 수익으로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지원하여 다스나파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북개발공사 최정호 사장은 "앞으로도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에 적극 동참해 ESG경영 실현에 선도적인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농진청, 위장에 좋은 약용작물 '삼주' 국내 재배용 품종 첫선

수량 많은 위풍, 역병·탄저병 강한 위강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수확량이 많고 역병에도 강한 약용작물 삼주 새 품종 '위풍'과 '위강'을 개발하고, 21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에서 평가회를 열었다.

삼주는 위장 보호 효과가 뛰어나 뿌리줄기가 생약재*로 쓰인다. 2022년 기준 660톤을 외국에서 들여와 수입액만 4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수입 의존도가 높다.

삼주는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식물로, 소화 불량, 복통, 구토 설사 등에 효능이 있어 사군자탕 등 다양한

처방에 사용한다. 삼주 뿌리줄기의 생약재 이름은 '백출'이다. 농촌진흥청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 자생종 삼주 중 우수한 개체를 선발·교배해 '위풍'과 '위강'을 개발했다.

'위(胃)에 좋다'는 삼주 특징과 '수확량이 풍부'하다는 뜻을 실려 이름 지은 '위풍'은 중북부 산간지에 적응토록 육성한 품종이다.

뿌리가 크고 수확량이 10아브(a)당 600kg(2년생, 마른 것 기준)으로 대조 품종(영동재)보다 2배 많다. 또한,

삼주 역병에도 강한 저항성을 지니고 있다.

'위강'은 '위(胃)에 좋고 병에 강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재배종보다 상대적으로 고온에서도 잘 자라 전국의 산간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다. 뿌리 수확량은 10아브(a)당 480kg(2년생, 마른 것 기준)이며, '위풍'과 마찬가지로 실내의 검정시험 결과, 역병과 탄저병에 강한 저항성을 보였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농업인과 산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삼주 새 품종의 현장 실증 결과와 산업화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수확량, 품질, 병 저항성 등 기존 재배종과 차별화된 특성을 살피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또한, 삼주 재배 확대와 더불어 원료를 산업화하는 민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운영호 과장은 "삼주 새 품종 개발은 약전에 등재된 자생종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삼주 원료 국산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정부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

국민연금연구원·한국연금학회, 보험연구원 공동정책세미나 개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국민연금연구원은 2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연금학회 보험연구원과 함께 '정부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 공동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정책세미나는 정부연금개혁안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세 가지 주제 발표와 전문가들의 종합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의 "정부연금개혁안 논점과 과제"를 시작으로,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의 "연금개혁안의 세대 간 공정과 노후소득보장",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이 이어졌다. 한정립 연구위원장은 "급속한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로 인해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로

이번 공동정책세미나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등 다양한 노후소득원이 조화를 이루는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논의의 장이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모두가 누리는 상생의 연금개혁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남원농협, 출하농가 현장견학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지난 18일, 임직원과 로컬푸드 직매장 우수 출하농가 40여명이 김제 국제종자박람회장 스마트팜혁신밸리 및 동갑제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현장 견학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현장 견학은 우수 출하 농가의 출하 품목 확대 및 변화된 소비자 식생활에 맞춘 품종 선택 등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

우수 출하 농가는 국제종자박람회



전시된 무, 배추, 양배추, 고추, 약용작물 등 58작물 497개 품종 작물의 생육

상태를 직접 확인하며 차년도 영농설계를 하였으며,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는 하우스 공기 유동 제어 기술을 습득했다.

박기열 조합장은 "남원농협은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한 농협 지역민에게 사명받는 농업이 되도록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ijmaeil.com에서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